

2022년 경기도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교육지원

최종 심의평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교육지원이라는 말은 다른 지원사업들의 명칭에 비해서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인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장애예술인들이 좀 더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인가? 장애인들이 전문예술가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인가? 교육을 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등등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할 것들이 많은 말입니다.

심의위원들은 위 질문들을 고심하며 다음을 고민했습니다.

각 단체가 이 사업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는가?

관련 경력이 있는 단체라면, 지난 성과물들은 어떠했는가?

지난 성과물들이 비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작업으로 머물지는 않았는가?

교육프로그램이 예술보다는 복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는 않은가?

결과물이 담보하는 예술적인 성취는 무엇인가?

또한, 장애유형별 장애인전문예술인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비가 책정되어 있는지, 컨설팅과 멘토링을 통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장애예술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보탬이 되는지 등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공연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단체의 역사성, 강사들의 전문성, 지난 결과물들에서 보이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예술에 대해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는 단체들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사단법인에이블아트’는 발달장애인 청소년과 청년 작가라는 대상을 두고 궁극적인 예술가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보인다는 점에서, ‘사단법인한국연극협회의정부지부’는 탄탄한 프로그램 계획과 지난 작업 과정과 결과물에서 보이는 진정성이 신뢰가 간다는 점에서, ‘지음오케스트라’는 창작곡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단법인콧’은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장애인 참여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운용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심의를 계기로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교육에 대한 지원 단체의 현실과 역량 또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지원 단체들 중 장애인의 눈과 귀로 세상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타자로 설정하고 시혜적 접근을 하는 단체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장애예술, 장애인예술, 왜 장애인이고 왜 장애+예술인가에 대해서 논의와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해 향후 장애예술인 교육 연구, 기반 마련에 대한 지원으로 방향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 5. 30.

전강희, 최희승, 최문애, 전지영